

중학생 정서·행동문제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홍원준**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1패널 1차년도 자료에서 정서·행동문제, 부모의 양육방식, 삶의 만족도에 응답한 중학교 1학년 2,59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3단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고려하여 각각의 집단을 “중간수준 정서문제(45.7%)”, “건강한 정서·행동(27.6%)”, “주의집중문제(14.8%)”,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11.9%)”로 명명하였다. 이어서 R3STEP을 통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자율성지지를 제외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모든 하위요인이 잠재집단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더 많은 따스함, 구조제공과 보일 경우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정서집단 속할 확률이 높았고, 반대로 부모의 거부, 강요, 비밀관성이 증가할 경우 부정적인 정서문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정서문제의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BCH방법에 의한 가중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한 정서·행동 정서문제 집단과 주의집중문제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어서 중간수준 정서문제 집단,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 순으로 본인들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대한 사람중심적 접근의 연구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잠재프로파일 분석, KCYPS 2018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 네바다 대학, 라스베이거스, 박사 후 연구원, wonjoon.hong@unlv.edu

I. 서 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면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학업성취를 통한 만족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상석, 염유식, 2010). 특히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민감한 심리적 특징으로 인해 이 시기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는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증거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3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에 따르면 12세 이후 우울, 불안 등의 정서문제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반대로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등 모든 정서지능들이 그전 나이대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는 개인 내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문제, 학업성취 문제 등 외적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진출 이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기원, 2014). 그러므로 급격한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와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생들에 대한 정서·행동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는 부모의 양육태도(고미숙, 2015), 학업 스트레스(김진아, 2015), 학교폭력 피해경험(윤소영, 유미숙, 2011)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 중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이정미, 양명숙, 2006; Wolfract, Hempel & Miles, 2003). 즉,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학업 및 학교생활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섭, 잔소리, 강요 등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생들의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고미숙, 2015; 김진아, 한귀례, 2014), 반대로 부모의 격려, 칭찬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안정된 정서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해준다(이지연, 김혜연, 2017).

이어서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정서·행동문제는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14). 결과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

은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한국 청소년들의 특성상 삶의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교육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OECD 전체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84.8%의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한 반면, 한국 학생들 중에는 불과 55.5%만이 본인들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한국의 학생들은 본인들을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의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서·행동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또는 개별 하위 요인들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들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Connell et al., 2008; Ferdinand, de Nijs, van Lier & Verhulst, 2005). 다시 말하면 그동안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 정서·행동문제의 하위 요인들이 동질적으로 적용된다는 변수중심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서·행동문제는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중심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중심접근은 변수들 간의 관계가 아닌 변수들의 상대적 수준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하위 집단들의 탐색과 이들 집단들 간에 상이한 작동원리들을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Bergman & Trost, 2006). 이러한 측면에서 3단계 접근 잠재프로파일분석(3-step approach latent profile analysis)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중심접근 분석인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달리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통해 잠재집단의 분류 오류(classification error)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잠재집단의 확인과 보조변수들(auxiliary variables)과의 관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존재하는 정서·행동문제의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의 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이러한 잠재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접근을 통해 중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변의 변수들과의 관계를 변수중심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실증적 탐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는 어떠한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며, 잠재집단별 특징과 학생의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는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의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볼 때 청소년기에는 자립성에 대한 주장의 증가와 함께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성향의 많은 부분은 부모와의 종속적인 기존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또래관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부모의 영향력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김은정, 2009). 그러므로 이 시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올바른 정서 및 행동 특성을 형성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감정의 상처를 야기하고, 이러한 문제는 자녀와 부모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아가 부모로부터 벗어나 또래 집단에서의 몰입이나 비행 행동 등의 어긋난 방향으로 감정의

문제가 표출된다(최미경 외, 2008).

이러한 문제는 부모의 지나친 통제로 정서적인 문제가 개인의 사고체계에 고착화되면서 생기는 내면화 문제와 반대로 과소 통제로 인해 행동으로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로 구분된다. 내면화 문제에는 주로 우울, 불안, 위축, 신체적 증상 등을 포함하며, 외현화 문제에는 공격성, 주의집중 감소 등과 같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포함한다(김진아, 한귀례, 2014). 내면화된 문제는 악화될 경우 자해 혹은 자살 등 보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외현화 된 문제는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서·행동문제 중에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그리고 우울을 하 위요인으로 다루었다.

주의집중은 행동적 형태로 나타나는 인지적 특성으로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 선택(selectivity)과 집중(concentration)의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Reed, 2012). 주의집중은 1980년대 이후 주의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에 대한 연구와 맞물려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Jensen, 2000). 사회적 위축은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접했을 때,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신체증상은 부정적 정서의 신체화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증상들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신현균, 2006). 우울은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정서문제 중 하나로, 12세 이전에는 1%에 불과한 우울을 겪는 학생의 비율이 청소년 시기에는 25%까지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다(Kessler, Avenevoli & Merikangas, 2001). 마지막으로 공격성은 의도적으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하영희 & Edwards, 2004). 특히 공격성은 13세부터 15세 사이에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신체 증상, 우울, 공격성,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서·행동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미숙, 2015; 김진아, 한귀례, 2014; 박은주, 최말옥, 2014; 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4; 정소희, 2016). 구체적으로 김진아와 한귀례(2014)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을 부모의 양육태도로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애정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와 가장 높은 부적 관계를 과잉간섭이 가장 높은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부모의 학대는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자녀로 하여금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정서문제를 매개로 하여 비행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주, 최말옥, 2014). 또한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았으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기원, 2014). 이렇듯, 이 시기의 정서 및 행동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추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반대로 부모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신뢰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감정 표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성숙한 정서적 발달을 도와준다. 또한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학습능력과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진다(김영주, 홍혜영, 2014; 김정민, 이유리, 2010). 이러한 정서적 발달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사회에 나가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밑바탕이 되어준다(권남희, 남상인, 2015; 박옥임 외, 2013).

2.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Huebner(2004)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Fujita & Diener, 2005). 또한 삶의 만족도는 정신건강(mental health)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살과 같은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는 정서적 혹은 신체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과도기를 겪으며, 더불어 성적 만능주의의 환경적 요인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겪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서문제와 함께 삶의 만족도 저하가 청소년기의 주된 문제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임선영, 2015). 특히 청소년기의 경험 및 발달은 성인 시기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평생 지

속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긍정적인 경험, 정서적 안정, 그리고 학습태도의 발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주로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 가능한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의 내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Diener, 1984).

청소년 시기의 정서문제와 삶의 만족도의 부정적인 관계는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김은영(2014)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태도, 정서문제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태도와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특히 남학생에서는 학습태도의 영향력이, 여학생한테서는 정서문제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김남정과 임영식(2012)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청소년활동 및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청소년 활동 및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청소년 활동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 활동은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스트레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활동을 권장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중1패널 1차년도(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8년부터 7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 2,607명,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선정하여 아동·청소년기의 복합적인 변화 양상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총 2,590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1차년도 데이터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연구에 사용된 도구와 관련해서 결측치(missing data)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학생 1405명(54.2%), 여학생 1185명(45.8%)으로 구성되었

다. 해당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해 있는 162개의 학교로부터 수집되었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정서·행동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정서·행동문제 문항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 프로파일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서·행동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에서 중복문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해 사용하였다. 주의집중은 7문항, 공격성 6문항, 신체증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한 후 총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문항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정서문제를 나타낸다. 표 1에 각 하위 요인을 측정할 때 사용된 문항과 신뢰도가 정리되어 있다. 모든 하위 요인에 대해서 신뢰도는 .8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의 문항과 신뢰도(Cronbach's α)

하위요인	예시문항	신뢰도
주의집중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820
공격성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839
신체증상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867
사회적 위축	머리가 자주 아프다	.874
우울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922

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Skinner, Johnson, and Snyder (2005)의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A)를 수정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를 사용하였다.

표 2
부모양육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하위요인	예시 문항	신뢰도
따스함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913
거부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789
자율성지지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884
강요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771
구조제공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769
비일관성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804

부모의 양육태도는 따스함(4문항), 거부(4문항), 자율성지지(4문항), 강요(4문항), 구조제공(4문항), 비일관성(4문항)의 총 6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하고, 반대로 거부, 강요, 비일관성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해석된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감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WLS는 자신의 삶에 대

한 인지적 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5개의 문항,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1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나아가 보조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단계 접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Vermunt, 2010). R3STEP방법은 독립변수가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로지분분석을 통해 확인하고(Asparouhov & Muthén, 2014), BCH접근(Bolck-Croon-Hagenaars approach) 방법은 잠재집단의 분류오류를 고려한 가중다중집단분석(weighted multiple group analysis)을 통해 잠재집단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Bakk & Vermunt, 2016). 이를 위해 Mplu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Muthén & Muthén, 1998-2017). 두 방법 모두 1, 2단계는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1단계에서는 보조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 모형에서 정서·행동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생성된 사후확률을 기반으로 분류오류를 반영한 프로파일 변수를 생성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조변수들을 포함하여 잠재집단과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 프로파일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R3STEP을 통해 알아보았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가 잠재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BCH접근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3단계 접근법은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발생하는 분류 오차를 통제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추정 가능하게 해준다(Asparouhov & Muthén, 2014).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적합도 지수, 프로파일의 실제적 유용성, 분류의 질 등을 고려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를 사용하였고, 집단 분류의 정확성은 Entropy를 통해 확인하였다(Morin & Wang, 2016). AIC, BIC, SABIC는 값이 낮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고, 잠재집단이 얼마나 잘 분류되었는지 보여주는 Entropy는 0에서 1까지의 값 중에서 1에 가까울수록 프로파일이 잘 구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모형이 얼마나 유의한지를 보여주는 ALMR(adjusted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였다. ALMR과 BLRT는 k개의 프로파일 모델과 k-1개의 프로파일 모델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올 경우 k개의 프로파일 모델이 k-1개의 프로파일 모델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Geiser, 2013).

IV. 연구결과

1.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3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과 정서·행동문제는 부적상관을 보였다($r = -.163 \sim -.368$). 반면, 거부, 강요, 비밀관성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r = .239 \sim .412$). 이어서, 모든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요인들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r = -.176 \sim -.414$).

표 3
정서·행동문제,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의 상관계수와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605											
3	.321	.463										
4	.304	.396	.359									
5	.391	.596	.506	.552								
6	-.252	-.324	-.237	-.195	-.368							

	1	2	3	4	5	6	7	8	9	10	11	12
7	.278	.347	.239	.152	.348	-.458						
8	-.256	-.316	-.228	-.191	-.368	.728	-.450					
9	.271	.313	.242	.187	.280	-.317	.486	-.403				
10	-.214	-.255	-.186	-.163	-.273	.540	-.262	.535	-.226			
11	.337	.412	.297	.256	.380	-.417	.482	-.461	.571	-.336		
12	-.276	-.363	-.279	-.289	-.499	.411	-.289	.429	-.234	.348	-.208	
최소값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대값	4,000	4,000	3,438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571
평균	2,165	1,917	1,863	2,152	1,799	3,370	1,767	3,347	2,179	3,061	2,045	2,992
표준편차	.563	.590	.444	.749	.638	.575	.623	.581	.652	.542	.639	.564

주1. 정서문제(1-주의집중, 2-공격성, 3-신체증상, 4-사회적 위축, 5-우울), 부모양육태도 (6-따스함, 7-거부, 8-자율성지지, 9-강요, 10-구조제공, 11-비일관성), 12-삶의 만족도
 주2. 모든 상관계수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잠재집단의 구분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잠재집단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2개에서부터 6개까지 늘려가며 적합도와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표 4를 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ABIC 값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샘플수가 많은 자료의 경우 잠재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Marsh, Lüdtke, Trautwein & Morin, 2009). 추가적으로 Entropy는 잠재집단의 수가 5개일 때 가장 높았으나, 마지막 집단의 크기가 ALMR의 p-value가 .05보다 작으므로 4개의 잠재집단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잠재집단보다 4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한 경우 정서문제 잠재집단간의 특성 차이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Mammadov, Ward, Cross and Cross(2016)는 결과의 해석성(interpretability)을 위해 각 잠재집단의 크기를 최소 전체의 10% 이상을 제시되었다. 하지만 5개의 집단수가 있는 모형부터 매우 작은 잠재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적합도 지수, 집단 별 각 집단에 속하는 비율, 그리고 각각의 잠재집단이 나타내는 정서·행동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 수가 4개인 모형을 최

중모형으로 결정하였다. 각각의 집단은 전체 학생의 45.7%, 27.6%, 14.8%, 11.9%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잠재집단 분류 기준과 비율

	잠재집단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AIC	19802.31	19110.78	18777.41	18445.09	17440.29	
BIC	19896.06	19239.69	18941.47	18644.31	17674.66	
SABIC	19845.22	19169.79	18852.51	18536.29	17547.57	
Entropy	.807	.817	.786	.826	.802	
ALMR	.000	.000	.010	.175	.560	
BLRT	.000	.000	.000	.000	.000	
비율	1	1,122(43%)	1,254(48%)	1,184(46%)	1141(44%)	1082(42%)
	2	1,468(57%)	983(38.0%)	714(28%)	737(28%)	564(22%)
	3		353(14%)	383(14%)	334(13%)	426(16%)
	4			309(12%)	333(13%)	367(14%)
	5				45(2%)	127(5%)
	6					24(1%)

3.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별 특성

그림 1과 같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5가지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요인을 기반으로 4개의 잠재집단을 구분하였다. 좀 더 명확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z 점수로 변환하여 하여 그래프를 구성하였다(이유정, 최문선, 2018; Wang, Morin, Ryan & Liu, 2016).

우선 집단1은 가장 많은 1,184명의 학생들이 속해있으며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모든 정서문제 하위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에 위치하였다. 그러므로 이 집단을 ‘중간수준 정서·행동문제’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714명이 속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보였으며, 따라서 ‘건강한 정서·행동’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383명의 학생이 선택한 집단3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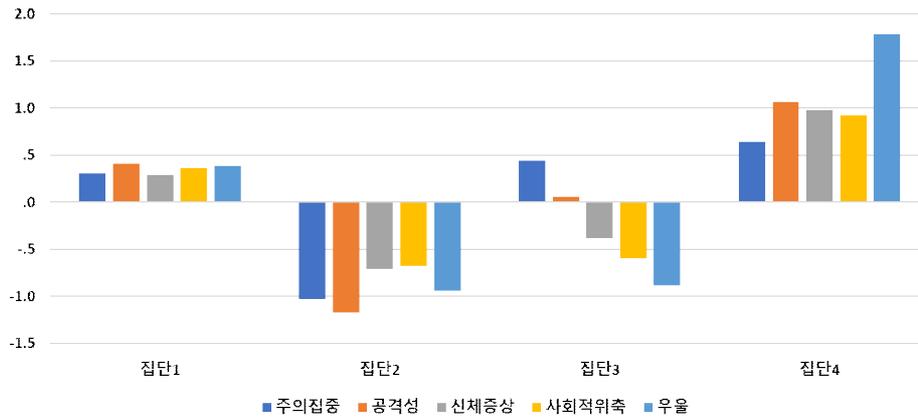


그림 1. 잠재집단별 정서문제의 하위요인 점수

주의집중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이 평균 혹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주의집중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4는 가장 적은 309명의 학생들이 속하였으며 5가지 모든 하위요인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우울의 점수는 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본 집단을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행동문제 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

잠재프로파일분석의 R3STEP 방법에 의해 수행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자율성지지를 제외한 양육태도의 모든 하위요인이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의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행동문제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	집단1 vs 집단2		집단1 vs 집단3		집단1 vs 집단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따스함	-.409 [*]	.185	-.370	.263	.512 [*]	.201
거부	.614 ^{**}	.229	.648 [*]	.292	-.202	.131
자율성지지	-.211	.210	-.436	.267	-.025	.194
강요	.152	.137	-.352	.186	-.420 [*]	.169
구조제공	-.327 [*]	.150	.045	.220	.270	.207
비일관성	1.400 ^{***}	.170	.031	.235	-.388	.173

부모의 양육태도	집단2vs집단3		집단2vs집단4		집단3vs집단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따스함	.039	.329	.922 ^{***}	.254	.882 [*]	.287
거부	.034	.455	-.815 ^{**}	.268	-.849 ^{**}	.288
자율성지지	-.225	.362	.187	.267	.412	.292
강요	-.504 [*]	.231	-.572 ^{**}	.206	-.068	.224
구조제공	.372	.261	.597 [*]	.242	.225	.268
비일관성	-1.370 ^{***}	.319	-1.788 ^{***}	.240	-.418	.260

^{*} $p < .05$, ^{**} $p < .01$, ^{***} $p < .001$

주. 집단1: 중간수준 정서·행동문제, 집단2: 건강한 정서·행동, 집단3: 주의집중문제, 집단4: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우선 따스함이 증가할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적었고, 또한 중간수준보다 건강한 정서·행동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거부의 표현이 증가할수록 건강한 정서·행동 혹은 주의집중문제 집단 보다는 중간수준 혹은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어서 부모의 강요가 높을 경우, 중간수준 혹은 건강한 정서·행동 집단 보다는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건강한 정서·행동 집단 보다는 주의집중문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구조제공이 높을 경우, 중간수준 혹은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 보다 건강한 정서·행동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건강한 정서·행동 집단보다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잠재집단별 삶의 만족도 비교

잠재프로파일분석의 BCH방법에 의해 수행된 기중다중그룹분석은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6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오차
중간수준 정서·행동·행동문제 집단	2,648	.017
건강한 정서·행동 집단	3,108	.024
주의집중문제 집단	3,028	.035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	2,181	.040
χ^2	603.95***	
사후검증	2=3>1>4	

* $p<.001$

주. 1. 중간수준 정서·행동문제, 2. 건강한 정서·행동, 3. 주의집중문제, 4.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강한 정서·행동 집단이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고, 반면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이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통계적 분석의 결과는 건강한 정서·행동, 주의집중문제, 중간수준,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는 건강한 정서·행동 집단과 주의집중문제 집단 사이에는 만족감의 차이가 없었고, 다음으로 중간수준,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단계 접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개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이 구성되는지 확인하고 주변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잠재집단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과 구성된 잠재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요인인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근거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중간수준 정서·행동문제, 건강한 정서·행동, 주의집중문제,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의 4개의 잠재집단을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건강한 정서·행동, 중간수준,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의 분류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이유정, 최문선, 2018; 최정아, 2012). 잠재집단별로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요인들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여주었던 하위요인들 간의 정적상관관계 결과로 설명될 수 있고(김진아, 한귀례, 2014; 배장섭, 2017; 이충권, 양혜린, 2015), 다양한 유형의 정서·행동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Connell et al., 2008; Ferdinand et al., 2005).

또한 동일한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유정과 최문선(2018)은 전반적 저수준, 전반적 중간수준, 전반적 고수준 정서·행동문제, 저수준 내제화 문제행동, 고수준 외현화 문제행동 집단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처음 3가지 집단은 본 연구에서의 중간수준 정서·행동문제, 비문제 집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그 비율 또한 비슷했다. 하지만 주의집중문제 집단과 우울중심 심각 정서·행동문제 집단은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최정아(2012)는 우울, 불안, 공격성만을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잠재집단을 분류하였는데, 저수준, 중간수준, 고수준, 최고수준의 잠재집단을 구분하였지만 그 비율은 본 연구와 달랐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연구 참여자와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따라 확인되는 잠재집단의 수와 특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율성지지를 제외한 모든 부모의 양육태도는 잠재집단의 분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 구조제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서·행동문제 집단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거부, 강요, 비밀관성 등 부정적 양육태도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행동문제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와 그 결을 같이 한다(고미숙, 2015; 김진아, 한귀례, 2014; 박희현 외, 2014; 정소희, 2016).

구체적으로 보면, 따스함을 느낄수록 자녀들은 우울중심의 심각한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최은희와 조택희(2016)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청소년은 우울의 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살에 대한 생각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만들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모의 지지에 의해 형성된 애착은 자녀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하고 나아가 적극적이고 탐색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Ridenour, Lanza, Donny & Clark, 2006). 구조제공은 어떠한 일을 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수행하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제공에 관한 연구는 정서·행동문제보다는 학업성취와 관련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구조제공이 학습 자율적 동기, 자기조절 효능감, 학업참여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정서 및 학습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김명숙, 2019).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성, 2007). 즉,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지 못하고 거부적이라고 느낄 경우 정상적인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강요는 자녀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그들만의 관점, 목표, 계획 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된다(Skinner et al., 2005). 그러므로 지나친 간섭과 강요는 자기 주도적인 기회의 박탈과 이것으로 인한 자존감의 하락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약속을 자주 지키지 않든가 혹은 규칙을 자주 바꾸는 등의 비밀관성은 자녀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 부모의 지나친 자의적 판단과 예측할 수 없는 의외의 반응이 지속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의 신뢰를 형성하기 힘들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로부터 거부를 경

협하면 중간수준 혹은 우울중심의 심각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경험했다. 특히 청소년 초기 혹은 중기에 경험하게 되는 부모의 거부와 비난은 정서의 불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한 부모들의 수용-거절(acceptance-rejection)은 보다 신중해야한다(Mendo-Lázaro, León-del-Barco, Polo-del-Río, Yuste-Tosina & López-Ramos, 2019). 또한 부모의 강요와 비밀관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문제 집단 보다 주의집중문제 집단에 속하게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강요와 비밀관성을 경험할 경우 학습에 집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를 경험하는 아이를 둔 많은 부모들이 비밀관적인 훈육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hide, Sciberras, Anderson, Hazell & Nicholson, 2016; Ellis & Nigg, 2009).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주의집중문제 집단과 건강한 정서·행동 집단의 만족도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의집중이 다른 정서문제들과 비교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서·행동문제와 삶의 만족도 관계는 Fredrickson(1998)의 확장과 수립이론(The broaden-and-build theory)으로 설명 될 수 있다. 확장과 수립이론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는 생각·행동의 레퍼토리(thought-action repertoires)를 확장시켜줘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유연한 목표 설정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즉각적인 안전, 행복, 생존과는 관련이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 건강, 인간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의, 인지, 행동 등이 즉각적인 문제 혹은 위협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생각 및 행동으로 인해 학생들이 본인들의 생활에 있어 기대하는 만족감을 느끼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변수중심접근으로 수행되어져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문경과 오은주(2015)는 청소년기 사회불안이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며, 정서표현 억제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정서가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의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지만, 부정적인 정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예측력을 가지거나 혹은 유의한 예측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그 결과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람중심접근법을 이용해 집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다(이유정, 최문선, 2018).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서·행동문제 잠재프로파일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하위요인들을 기반으로 어떠한 정서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정 정서 및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학생이 특정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할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정서·행동문제를 조사해 볼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학생 개개인을 고려한 실질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정서·행동문제의 수준차이로 잠재집단을 구분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최정아, 2012),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보이는 잠재집단을 발견함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정서·행동문제가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잠재프로파일 확인에서 더 나아가 주변변수들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먼저 다양한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집단 분류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양육방식의 하위요인들이 가지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이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고미숙, 2015),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정서·행동문제를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람중심접근법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 항상 정서·행동문제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이어서 정서·행동문제 그룹에 따른 삶의 만족

도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만족도의 원인으로써 정서·행동문제를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의 만족도가 더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학교생활을 포함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볼 때 필수적이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처럼(김은영, 2014; 정문경, 오은주, 2015) 정서·행동문제가 심각할수록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문제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학생 개개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만족도와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처방 및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방법론적으로, 3단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그룹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들과 다른 주변 변수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기존에 사람중심접근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군집분석(신현숙, 2013)은 개개인이 배타적으로 특정한 그룹에 완전히 속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류오류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학생 개개인이 특정 그룹에 속하게 되는 상대적인 확률을 고려하지 않게 됨으로써 정확한 분석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Pastor et al., 200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분류오류를 고려하여 주변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특성, 즉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서 우울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른 정서문제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볼 것을 제언한다(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 또한 연령을 고려해 아동, 청소년, 성인 시기의 정서문제 집단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또래관계, 학습습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장섭, 2017; 이충권, 양혜린, 2015). 즉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이 직접적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처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경로를 탐색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예측변수로 정서·행동문제만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 개인의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및 사회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인 정서문제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미숙 (2015).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애착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6), 783-793. doi:10.5934/kjhe.2015.24.6.783
- 권남희, 남상인 (2015). 부모의 양육태도, 친사회행동 및 공감적 태도가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1), 189-217.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남정, 임영식 (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 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명숙 (2019). 부모의 구조제공이 중학생 자녀의 자율적 동기와 학업적 자기조절 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율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3(1), 27-50. doi:10.17286/kjep.2019.33.1.02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영주, 홍혜영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4), 31-46.
- 김은영 (2014).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초등 6 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1, 1-22.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또래관계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85-129.
- 김정민, 이유리 (2010).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3-26.
- 김진아 (2015).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6(3), 359-377. doi:10.15703/kjc.16.3.201506.359
-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doi:10.15703/kjc.15.6.201412.2379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10.21509/kjys.2017.03.24.3.313
- 문상석, 염유식 (2010). 학벌과 불행: 한국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 **현대사회와 문화**, 31(10), 73-102.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1), 1-15. doi:10.5723/kjcs.2014.35.1.1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 연구**, 16(2), 63-92.
- 박옥임, 백사인, 박준섭, 박병훈, 이수진, 김정일 (2013).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서울: 창지사.
- 박은주, 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19-238.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 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 17(3), 345-362.
- 배장섭 (2017). 부모양육행동, 정서문제 및 삶의 목표가 청소년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19, 51-71.
- 신현균 (2006). 청소년의 신체증상 경험에서 부정적 정서의 영향 및 정서표현과 자기 개념의 중재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3), 727-746.
- 신현숙 (2013). 남녀 청소년의 공격성 군집에 따른 우울, 자극추구성향, 정서조절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0(2), 191-215.
- 윤소영, 유미숙 (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 연구)**, 14(4), 59-75.
- 이유정, 최문선 (2018).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잠재집단유형과 문제적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497-521. doi:10.22251/jlcci.2018.18.12.497
- 이정미, 양명숙 (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

- 연구, 7(3), 865-883.
- 이지연, 김혜연 (2017).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중심으로. **코칭연구**, 10(3), 5-27.
- 이충권, 양혜린 (2015). 청소년의 학대, 방임경험이 정서문제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문제와 또래관계 간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261-285.
- 임선영 (2015).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 17, 353-376.
- 정소희 (2016).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초, 중, 고 발달단계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6), 119-144. doi:10.21509/kjys.2016.06.23.6.119
- 정문경, 오은주 (2015).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335-361
- 정윤성 (200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 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15(1), 91-103. doi:10.35151/kyci.2007.15.1.008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3), 87-98.
- 최미경, 신정희, 구현경, 박선영, 한현아, 최단비 (2008).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 **아동학회지**, 29(5), 227-242.
- 최은희, 조택희 (2016).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152-162. doi:10.5392/jkca.2016.16.02.152
- 최정아 (2012).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개인, 부모, 또래 영향요인 검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431-455. doi:10.21479/kaft.2012.20.3.431
- 하영희 & Edwards, C. P.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 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121-132.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 329-341. doi:10.1080/10705511.2014.915181
- Bakk, Z., & Vermunt, J. K. (2016). Robustness of stepwise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ntinuous distal outcom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3*, 20-31. doi:10.1080/10705511.2014.955104
- Bergman, L. R., & Trost, K. (2006). The person-oriented versus the variable-oriented approach: Are they complementary, opposites, or exploring different worlds?. *Merrill-Palmer Quarterly*, *52*, 601-632. doi:10.1353/mpq.2006.0023
- Bhide, S., Sciberras, E., Anderson, V., Hazell, P., & Nicholson, J. M. (2019).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style and socio-emotional and academic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ADHD: A community-based study.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23*(5), 463-474. doi:10.1177/1087054716661420
- Connell, A., Bullock, B. M., Dishion, T. J., Shaw, D., Wilson, M., & Gardner, F. (2008). Family intervention effects on co-occurring early childhood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A latent transition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8), 1211-1225. doi:10.1007/s10802-008-9244-6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oi:10.1037/0033-2909.95.3.542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oi:10.1207/s15327752jpa4901_13
- Ellis, B., & Nigg, J. (2009). Parenting practices an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New findings suggest partial specificity of effec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8*(2), 146-154. doi:10.1097/chi.0b013e31819176d0
- Ferdinand, R. F., de Nijs, P. F., van Lier, P., & Verhulst, F. C. (2005). Latent class analysis of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referred adolescents.

-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8(3), 299-306. doi:10.1016/j.jad.2005.08.004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00-319. doi:10.1037/1089-2680.2.3.300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64. doi:10.1037/0022-3514.88.1.158
- Geiser, C. (2013). *Data analysis with Mplu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3-33. doi:10.1023/b:soci.0000007497.57754.e3
- Jensen, P. S. (2000). ADHD: current concepts on etiology, pathophysiology, and neurobiolog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9, 557-572. doi:10.1016/s1056-4993(18)30107-x
- Kessler, R. C., Avenevoli, S., & Merikangas, K. R. (2001). Mood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n epidemiologic perspective. *Biological psychiatry*, 49(12), 1002-1014. doi:10.1016/s0006-3223(01)01129-5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2), 242-259. doi:10.1037/0003-066x.53.2.242
- Mammadov, S., Ward, T. J., Cross, J. R., & Cross, T. L. (2016). Use of latent profile analysis in studies of gifted students. *Roeper Review*, 38(3), 175-184. doi:10.1080/02783193.2016.1183739
- Marsh, H. W., Lüdtke, O., Trautwein, U., & Morin, A. J. S. (2009). Classical latent profile analysis of academic self-concept dimensions: Synergy of person-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models of self-concep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6, 191-225. doi:10.1080/10705510902751010
- Mendo-Lázaro, S., León-del-Barco, B., Polo-del-Río, M. I., Yuste-Tosina, R., & López-Ramos, V. M. (2019). The Role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in Emotional Instability during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7), 1194. doi:10.3390/ijerph16071194
- Morin, A. J. S., & Wang, C. K. J. (2016). A gentle introduction to mixture modeling using physical fitness performance data. In N. Ntoumanis, & N. Myers (Eds.), *An introduction to intermediate and advanced statistical analyses for sport and exercise scientists* (pp. 183-210). Chichester, UK: Wiley.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7). *Mplus user's guide* (8th ed.). Los Angeles, CA: Author.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doi:10.1016/j.cedpsych.2006.10.003
- Peterse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47-271. doi:10.1007/bf01537611
- Reed, S. K. (2012). *Cognition: Theory and applications* (9th ed.).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Ridenour, T. A., Lanza, S. T., Donny, E. C., & Clark, D. B. (2006). Different lengths of times for progressions in adolescent substance involvement. *Addictive Behaviors*, 31(6), 962-983. doi:10.1016/j.addbeh.2006.03.015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doi: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Skinner, E., Johnson, S.,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doi:10.1207/s15327922par0502_3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doi:10.1093/pan/mpq025
- Wang, J. C., Morin, A. J., Ryan, R. M., & Liu, W. C. (2016). Students'

motivational profiles in the physical education contex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8*(6), 612-630. doi:10.1123/jsep.2016-0153

Wolfradt, U., Hempel, S., & Miles, J. N. (2003). Perceived parenting styles, depersonalisation, anxiety and coping behaviour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3), 521-532. doi:10.1016/s0191-8869(02)00092-2

ABSTRACT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adolescents'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Hong, Wonjo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optimal latent profiles of adolescents'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and to examine their relationship with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2,590 first-grade middle school students harvested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8(KCYPS 2018). The results of a latent profile analysis indicated that a four-profile model was the best model, based on multiple model fit indices: middle-level emotional/behavioral problems(45.7%), no emotional/behavioral problems(27.6%), Attention problems(14.8%), and depression-focused high-level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11.9%). A subsequent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R3STEP procedure, showed that all variables of parenting attitudes, except for autonomy suppor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emotional problem profiles. Additionally, the weighted multiple group analysis, based on a BCH approach reveale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emotional/behavioral problem profil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a person-centered approach in analyzing adolescents'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Key Words: adolescents'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parenting attitude, life satisfaction, latent profile analysis

투고일: 2020. 3. 9, 심사일: 2020. 5. 7, 심사완료일: 2020. 5. 14

*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Post-doctoral Fellow, wonjoon.hong@unlv.edu